

“작가는 스스로 말하는 자이자 듣는 자이다.”

김 온 개인전

<Marginalia> 청주창작스튜디오 전시장\_2013.10.10-10.20

<47pages>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47, 1층\_2013.10.12-10.15

이단지\_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 Margin\_공기의 이미지

그 곳은 고요했다. 비슷한 높이의 마이크들은 사다리 위 허공을 향해 켜져 있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사건도 없다. 흰 벽에 팽팽하게 당겨진 피아노 줄에는 어떤 미동 없이도 사각거리는 착각을 불러오는 백지 두 장이 매달려 있다. 검은 테이프의 사각 구획(프레임) 안에 붙어있는 새까만 종이. 스스로의 무게에 의해 검고 얇은 종이는 살짝 말려있다. 무언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들여다 본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지친 자들의 유토피아>는 활자들이 잘려나간 채 낡은 지질의 뚫린 종이만 남아있다. 지난 가을 있었던 김 온의 개인전 <Marginalia>에서는 작품의 요소 요소보다 전시장 전체의 긴장과 긴장을 발생시키는 비어있는 상황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상황(전시)에서의 긴장들은 하나 하나의 개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는 허공을, 검은 종이는 흰 종이를, 팽팽한 선은 벽(혹은 벽과 선, 그 사이의 틈)을 ‘만나면서’ 발생하는 장면이 된다.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여백(margin)은 무엇인가?

이것은 공간적인 이미지인가? 침묵의(시간적인) 그것인가?

존 케이지(John cage)는 무음실에서 (無反響室, anechoic chamber\_공학연구를 위한 실험실로 소리의 울림과 반사를 완전히 차단한 방) 알려진 바와 같이, 스스로의 몸 속에 흐르는 혈류와 심장 박동의 고저음(高低音)을 들었다고 한다. 절대적 침묵 혹은 여백(margin)이 관념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감각이 지각으로 연동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정보의 송수신과는 어떠한 관계 없는 것일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관념의 세계로 이어지는 정보의 순환이라는 것은 여백과 같은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세우고 무너뜨리기를 반복하는 영속적인 창발의 장소, 질료로서 움직이는 대기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전시의 제목과 작품들을 보면 여백에 대한 작가의 호출은 문학의 물신인 인쇄된 종이, 다시 말해 책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읽기와 쓰기가 시각을 전제로 발현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김 온은 이것을 ‘노랫소리’, 또는 ‘듣기’의 상상으로 다시 실험한다. (사실 모든 ‘소리가 없는 읽기’의 순간조차도 시간의 영속에서만 인지와 이해가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바슐라르의 <공기와 꿈>에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리 없는 낭독’은 닫혀진 침묵이 아니라 열려있는 침묵, 호흡하는 것, 주의 깊은 침묵이 시작되는, 상상력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발생 이전의 가청음, 즉 말 되어지기 전의 관념으로의 그것은 작곡가와 시인이 가지는 창조의 과정에서 본질의 예술성, 자체로 설명될 것이다.

### 화자에서 청자로, 관중(spectator)에서 청중(audience)으로.

낡은 종이, 잘려나간 활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액자 안을 다시 들여다 본다. 빈 종이 위에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아. 액자 안의 페이지는 보르헤스의 <지친 자들을 위한 유토피아>의 소설책 원본이 아니다. 여기서 원본이라는 것은 소설이라는 문학의 그것이라기 보다는 인쇄물 자체의 한정 속에서 이지만, 어쨌든 액자 안의 잘려나간 그것은 어딘가에서 출판되었을 오브제 자체에서 떨어져 나온 책의 페이지가 아니다. 작가는 활자 인쇄의 여백(margin)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본의 그림자, 즉 책 페이지의 표면을 스캐너로 읽은 뒤 다시 프린트한 것을 자르고 걸어 놓았다. 이것은 창작자(소설가)의 악보(책)와 그 이후의 연주자(독자) 사이에 발생한 공간적, 시간적 거리(distance)를 상상하게 한다. 다시 읽는 복사본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소설과 뒤따라오는 누군가의 ‘읽기’를 의식하게 만든다. 마이크, 스피커, 액자, 그리고 빛으로 쓰여진 <snow writing>이라는 글자까지. <Marginalia>의 시각적인 이미지는 그것을 읽어내기 보다는 ‘읽어내기’가 가능한 어떤 순간을 기다리는 것에 가깝다. 김 온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은 종이 위에, 확성기의 목전에, 빛과 그림자의 사이에서, 혹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 속에서 돌아가는 얇은 팬의 진동소리를 의식하는 시간에도 나타난다. 작가는 스스로 말하는 자이자 동시에 ‘말 되어지기 이전의 흥얼거림’, 표현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어떤 감흥, 진동을 기다리고 있는 청자(聽者)이다. 청자의 의식으로 구현된 장면은 보는 이에게도 ‘읽어내는 자’가 되기보다는 ‘듣는 자’가 되기를 부탁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같은 기간 중 4일 동안 청주 향교 근처의 빈 공간에서 이루어진 <47pages> 프로젝트로 동시 진행 되었다. (전시장과는 비교적 멀지 않은 거리로 청주 향교 근처의 길가에 위치한 오래된 집이다.) 빈 집은 사실 오래 전부터 그 곳에 있었다. 상가도 네온 싸인도 없는 한적한 길가에서 의식하는 바 없이 이미 계속 있어 왔다. 허

름한 집은 온기는 없어도 좁은 부엌과 작은 창문에 묻은 흔적들이 차갑지는 않다. 누군가의 인생의 한 순간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일 것이다. <Marginalia>의 전시장에서 서 있는 관객은 눈 앞의 작업들에 관심을 갖겠지만, 작가는 여백의 또 다른 페이지, <47pages>를 생각한다. 빈 집의 구석에서 뜯어진 도배지와 작가가 가져다 놓은 검은 종이 놓여진 설치작업은 이미 존재했던 것들과의 만나면서 발생하는 생경함이 호흡으로 발현된다. 아마도 작가는 어두운 빈 집에서 자신의 호흡을 만나기 위해 여러 날을 기다렸을 것이다. 대부분의 전시가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 시공간의 설정은 물리적으로는 바로(now) 관객의 눈 앞(Here)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거리적으로 떨어져 나온 단절된 47페이지, 또 하나의 남겨진 페이지는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아이디어를 의식하는 장치가 되어 오히려 더욱 명확한 지금과 여기를 만나게 한다.

### 연주자의 이미지

아래는 필자의 사족(蛇足)이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심으로 최근에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Glenn Gould, 1932-1982)가 연주한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Bach: Goldberg Variations BWV 988)을 듣고 또 듣고 있다. <Marginalia>의 구조와 그것이 향하고 있는 바가 내 머리 속에 맴돌고 있는 까닭인지 알 수 없지만, 피아노를 잘 듣지 않는 내가 요즘 거의 매일 듣는다. 글렌 굴드는 사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은 작곡이었다고 밝힌 적이 많다. 1959년 캐나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악상이 떠오를 때 피아노로 연주합니까?’라고 묻은 프로듀서의 질문에 ‘아니오, 전혀요. 피아노라는 녀석은 사람을 헛갈리게 하는 악기입니다. 손가락은 대체로 비논리적인 악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악상은 음악의 순수하고 견고한 현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대답하였다. 괴짜와 같은 그의 철학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유명한데, 특히 본인의 연주와 함께 간혹 스스로의 얇은 허밍 소리를 내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화이다. 녹음 기술자들은 굴드의 앨범 작업에서 그의 허밍을 녹음하지 않기 위해 각국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콘서트를 부정하고 서른 두 살이 되던 해부터는 아예 레코딩 작업에만 참여하였다.

1.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래를 마지널리아 Marginalia 라고 불렀다.”
  2. “마지널리아 Marginalia 는 그 어떤 노래를 지칭하는 아무도 감지하지 않는 노랫소리의 이름일 수 있다.”
  3. 마지널리아 Marginalia 는 항상 표면 위에 존재할 뿐, 그것은 아직 불리워지지 않는 노래를 말한다.
  4. 마지널리아 Marginalia 는 흥얼거림이다.
  5. 마지널리아 Marginalia 는 콧노래일 수 있다.
- [...]그렇게, 그곳에 Marginalia 라고 명명된 그 어떤 콧노래가 있다.  
[...]  
\_김 온

작품을 공간에 놓는다는 것은 늘 비어있는 어떤 상태에서의 출발과 비슷하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여백과 틈은 실제와 표현을 바닥 삼아 떠오르는 것이므로 완전한 상태의 여백이라는 것은 이미 없다. 전시장의 여백은 묵언과 부재의 그것이라기 보다는 흔들림과 파장, 관념적인 소음의 공간이 된다. 음(音)은 침묵에서 시작하지 않고, 소음 속에서 태어나 발생과 동시에 소멸 속으로 흩어진다. 두 가지 이상의 동기로 발생된 음이라 할지라도 그 피치는 계속되지 않는다. 듣는 이는 매번 사라지는 음들의 간격과 사이사이의 공간을 연결하며 새로운 음악, 혹은 이야기를 듣는다. 김 온의 <Marginalia>의 이미지는 시청각의 재현과는 거리가 먼, 어떤 창조의 의지와 같은 현상, 그것을 매개하는 질료로써의 공기에 해당한다.

낮선 동네에서 <47pages> 전시를 보고 돌아 나오는 길에 어느 집 개수대에서 나와 하수구로 흘러가는 물의 유난한 소리를 들었다. 흘러가는 소리는 소멸하는 것 인가, 아니면 내가 볼 수 없는 다른 우주에 편승되는 것 인가. 소리 이전의 상태를 상상해 보다가 방금 들은 물 소리를 녹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부질없다. 다시 듣는다 한들 내 귀도 그 만큼 거리의 다른 우주의 순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